

자비행 있기에 세상은 살만하다

포교와 구출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IMF 그들은 예견된 불행 흥청망청 했던 국민모두의 共業

불교인 모두가 이타행을 펴 동사섭 가르침 실천할 때이다

밭고와 나서는 일이다. 무수하게 쏟아지는 실직자, 가정을 잃은 자, 잠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살피 주는 중생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촉구한다. 말로는 방생 등을 외치면서 먹은 것, 잠잘 곳이 없어 괴로워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쌍한 이웃을 외면하고 무엇을 방생하고 누구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고서도 왕생극락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 지난 3월 23~27일 백양사에서 열린 'IMF극복 수련회'

가능한 한 도시와 도시주변의 사찰에선 이들에게 하루 한끼의 밥공양만이라도 제공하는 동사섭의 가르침이 실천되도록 모든 불교인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보살피지 않고 극락길 열원하고 선진국 국민이 될까 바란다는 것은 위선이며 자기기만이다. 불교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타(利他)행을 펴는데 모두가 동참하여 각자가 부처님의 가르침따라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쌍한 이웃과도 함께 하는 불교인의 참모습을 보여주자. 아울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덜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부 다른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접근, 포교하는 약탈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하여 이승까지 간직하고 기도로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조그만 안내서를 제공하여 하루 한시간만이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거나 절의 형편에 따라 선 일정한 날을 정해 그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열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따라 지난 날을 반성 회회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도록 이끌어 줄 의무

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세기만에 최대국난에 처한 지금, 불교인 모두가 국가의 재난극복에 앞장서는 것이다. 한국불교총연합회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사찰을 순회하면서 8회에 걸쳐 '국난극복 참회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스님들과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불자들만의 일로 보지 말고 불교인 모두가 동참하는 구국(救國)을 위한 대법회가 될지 열원한다. 대법회가 열리는 시간엔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도 함께 기원회가 열릴 바된다. 불교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원하여 기도할때 지금의 국난은 앞당겨 종식될 것이다. 이는 수많은 처한 국난극복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이다. 불교인들은 IMF 고통이 끝나더라도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세속의 구차한 재앙같은 것은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한다. 설혹 나와 내 주변 또는 사회와 국가에 염습하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함께 물러가게 마련이다. 이같은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 정진하여 조국의 명예회복과 발전을 기원하자.

고물가와 고실업 시대. IMF 관리체제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고 '사장님'들이 속출하고 가정이 파과 9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시절을 살아가는 데는 니련선하의 새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통받는 사명감을 요구받고 있다. 배고픈 사람 천행과 황폐해져 가는 마음을 적셔주 포교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고난의 시비(悲)의 원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불기 2542년

부처님

■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 무슨 잘못이 있으며, 헛벗은 자를 구해 주면 감싸고 재앙에 빠진 자를 구해 주면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양글마경>

■ 동산을 꾸며 맑은 공기와 그늘을 주고 강에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건너게 하며 나그네를 위해 좋은 집을 짓는 사람 그는 밥이나 냐나 반드시 복을 받나니 계율과 선정을 두루 성취하여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리라. <중월야합경>

■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지 선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광등해 누우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하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화엄경>

■ 중생이 보살의 처소에 와서 말하기를 "인자(仁者)여, 우리는 가난해 의식을 이어 가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곤경에 빠져 목숨조차도 위태로울 지경이니, 원컨대 자비심을 일으켜 저게 당신의 삶을 보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그을 먹고 목숨을 이어 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때에 보살은 재물을 배어 주어, 그 사람이 가하고 만족하도록 해준다. <화엄경>

■ 보살이 가난한 중생을 만나 못한다면 자비심이 생겨날 기회 없을 것이요, 자비심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보살할 마음도 일어나지 할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 볼 때마다 보시하는 인연을 지어

경전
부처님
도 보시가
주는 것이
진리의 몸
법이기에
는 다는
생명을 줄
주는 자와
에 있었던
월해 큰
것이다.
로 어떻게
경전의 말
굶주린
목마른
헛벗은

모든 일엔 원인과 결과가 짝짓기처럼 붙어 다닌다. 다만 원인이 발생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같은 현상을 기리켜 인과보라고 정의했다. 이 이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인류는 태고 이래 이 진리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살아왔다. 지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다. IMF가 갑자기 들어와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한국경제를 삼키려는 의도에서 한국의 거대기업들에게 쓴 값에 처분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다.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하며 살아온 과거의 집단적 행태에 대한 엄연한 업보다. 무지와 방탕, 아만과 탐욕적 생활을 해온 데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 즉 응보를 국민 모두가 집단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위로는 전임 대통령부터 고급관료, 공무원, 대소 기업의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이 지난 몇년동안 분배 받은 생활을 해온 결과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무지에 가까운 정도의 방만한 국정운영, 아집과 만심(慢心)에 찬 사정작업, 국가경제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밀어붙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탐심(貪心)의 정책 등이 일시에 동쳐 나타난 결산보고서일 뿐이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 적자문제만 해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년전부터 지적된 정책 과재였다. 1990년 21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을 때 이미 경제정책의 주요관심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1993년 한해 39억8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는 1997년까지 계속해서 적자행진이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3~4년 전부터 이 문제에 신경써야 했다. 그럼에도 정책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추진됐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경제 실상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장미빛 청사진을 퍼보임으로써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

를 빚고 말았다. 1990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작년 말까지 경상수지 적자총액은 무려 6백15억달러에 달한다. 지금 한국이 IMF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국제금융규모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과거 7년전부터 한국은 오늘의 사태를 잉태시켜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예견된 불행이었다. 미숙한 국정운영의 한 단면이다. 온 국민에게 경제의 진실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미리 대처해 갔다면 지금과 같은 고통은 모면했을 것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은행등으로부터 자금을 마구 차입, 능력에 넘칠 정도의 사업을 벌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경영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 분수도 모르고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고금리처럼 살려고 했던 국민의 방자한 생활태도 역시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수난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불교는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을 극복하려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실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불교인들은 지금의 재난을 기회삼아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경제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의 거품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허황된 생각, 꿈 망상 환상 등을 깨끗이 씻어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속에 사는 중생들에게만 주어질 일이다. 절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도들의 소독감소, 생활의 위축, 장래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법이는 대작불사 등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계획대로 성사가 되지 않을 때는 피차가 괴로운 일이 된다. 앞으로는 대작불사를 추진할 때 경제동향 등도 감안하는 과학적인 분석과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불교계도 하루바삐 받아들여야 할 일종의 시대적 요청이다. 지금 불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른바 IMF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불교사 속의 救難이야기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이 강화 선원사의 주지 소임을 맡을 때의 일이다. 몽고와의 전란과 흉년이 겹쳐 백성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스님은 대중들에게 청정한 계율과 몸가짐을 요구하며 오후불식을 시켰다. 그렇게 아긴 양식은 아밤에 몰래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서산대사의 법제자 권양 언기스님은 평양성내의 모란봉 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임진왜란으로 피난 온 백성들을 보살피는 왕초가 되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경봉스님이 풍도사에서 소작료 강연을 맡고 있을 때다. 스님은 풍도사 양식창고가 비는 것보다 소작인들 양식창고에 비어는 안된다는 신조도 후하게 강연을 해줘 조실스님에게 불려가기도 했다. 신도들에게 가이돈이 들어올 때마다 가난한 신도,

영편이 어려운 신도들에게 나누주는 데도 앞장섰다. △민암스님은 백양사 주지를 맡고 난 후 반선반농의 생활규범을 세웠다. 백양사 중창불사를 벌이던 스님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극에 달했을 무렵 흉년이 들자 백양사 대중들을 죽을 썬어 먹게 하고 여유분 양식을 일제히 마을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백양사 중창을 위해 버 삼백석을 보시하겠다는 지주에게도 그 삼백석을 인근의 헛벗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등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현암스님이 봉은사에 계시던 을축년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해에 봉은사 스님들은 위엄을 무릅쓰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칠백여명이나 구해냈다. △천장암에 머물던 경허스님은 도승이라 소문을 내 주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죄목으로 총주목사에게 잡혀갔으나 총주목사를 불법으로 감화시켰다. 총주목사는 경허스님의 인연으로 자신의 사재를 털어 헛벗은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보시행을 실천했다. △독립선언대표 33인의 한사람인 홍성스님은 왕실에서 비밀리에 시주한 돈으로 만주에 70경보의 농토를 구입해 대각교당을 세워 헛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입울 것, 먹울 것, 약 울을 나눠주고 선농일치를 실천하면서 독립운동가들도 보살폈다. △중국 577종의 법안종(法源宗) 제3조인 영명연수(永明延壽)스님은 출가 전에 자사라는 벼슬을 지냈다.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어 굶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국고를 털어 굶은 백성을 먹이고 난 뒤 중앙에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했다. 이 일로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형리의 상소로 석방된 후 불법에 귀의했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명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은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범보신은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인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회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들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